

##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야고 2,1)

오늘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높은 산과 오래 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아집과 편견의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길"(바룩 5,7 참조) 바라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총 없이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느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서 회개는 결국 후회와 뉘우침 이후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대림 제2주일은 '인권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권 주일을 시작으로 대림 제2주간을, 신자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운 사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그리스도인 삶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교리 주간'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창조되었으므로 존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될 것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하는 것은 복음의 요구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보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누군가 차별당하고 있는 나를 환대해 준다면, 나는 사랑과 친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마음에 일치시키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차별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내적 치유를 찾도록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작은 환대의 행동들을 지금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인 필리피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필리 1,10 참조)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묵시 22,20)



김종원 히지노 신부 | 이주민 사목

### 주일 진례

### 4면 대림 시기 판공성사 일정

**제1독서** 바룩 5,1-9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2독서** 필리 1,4-6,8-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 표징 6 - 삶이 묻어나는 전례

종묘제례악이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춤과 음악, 노래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종묘제례악은 600여 년 가까이 생명력을 지닌 최고 걸작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국립국악원 단원 120명이 1년에 걸쳐 맹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80분 공연에 프랑스인들이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오늘 공연을 보며 잠시 한국인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과 한자리에서 강렬한 문화적 교감을 느껴 매우 기쁩니다.”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접한 것 같아요.”  
- K-arts, 파리를 매혹하다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전례는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렇게 하여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진 깃발로 보여준다.  
- 전례 현장 n.2

전례 안에는 순환이 있습니다.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는 그 신비가 열매 맺도록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매 맺은 삶을 기쁨으로 전례 안에서 다시 봉헌합니다. 그러한 일상과 전례의 기쁨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며, 그것이 복음전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 사도 2,46-47

### ● 공소지도자 연수

소식



교구 내 공소지도자들을 위한 연수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주교구 성지순례로 실시되었다. 26개 공소 78명의 참석자는 전주 나바위 성지와 치명자산 성지를 비롯한 전주교구 일대 성지를 순례하며 순교자들의 삶을 묵상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수 중 공소 회장 협의회 총회에서 최창봉 회장(요한, 가조공소)이 협의회 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었다. 또한 교구 내 공소를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구별 부회장을 선임하여 공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결의하였다.

지세포본당(주임 : 김효 베르나르도 신부) 평화의 모후 Cu.(단장 : 오형기 라파엘)는 11월 18일 본당 강당에서 연차총친목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당 단원 40여 명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영수 위원(그레고리오, 레지아 교육위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석한 단원들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단합으로 일치되는 시간을 가졌다.



### ● 지세포본당 연차총친목회

### ● 교구청년연합 성지순례



교구 청년부(담당 : 이동진 안셀모 신부)에서 11월 18일 교구청년연합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천호성지와 전주 전동성당을 순례했으며, 7개 본당 32명의 청년들이 함께하였다. 청년들은 “순교자들의 마음가짐과 깊은 신앙심을 느끼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청년들이 따로 오기 힘든 전라북도의 성지들을 다녀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제37회 인권 주일, 제8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해마다 대림 2주일을 인권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강생과 함께 도래한 '종말의 시간'을 살며 깨어 지내던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되새기며 인권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일은, 다가온 성탄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지금 우리는 인권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찰하고 발언하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를 막론하고 여러 추문으로 하느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곤혹스러움이 깊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세상을 향해 인권을 이야기하면 자칫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루카 4,23)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상처입고 고통받는 이가 더 깊고 근원적으로 치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처입은 치유자"란 헨리 나웬 신부님의 표현이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오랜 사회 교리 전통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모범을 따라, 올해 인권 주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권 현실에 관해 신앙의 지성으로 성찰하고 정직하게 발언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도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이나 청년 노동자, 노인, 아동, 국가 폭력 피해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인권 사각지대가 널려 있습니다만, 작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겹겹의 차별을 받고 있는 농어촌 이주 노동자에게 최우선의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그리고 국내이주사목위원회를 통한 1년의 조사 연구 끝에 올해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 안내문'을 만들어 각 교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권 주일에는, 주로 농어촌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이 짧은 성찰과 권고, 이른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올해 심각하게 불거진 여성 인권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인권 영역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하지만, 근원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 두루 아우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인권 감수성의 토대는 타자의 '다름'이 초래하는 불편함을 감당하고 소화하는 능력, 곧 상대의 다름을 가능한 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이 서두에서 "진리는 (진리 자체의 힘으로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다."(1항 참조)고 말한 것은 정녕 인권 감수성의 귀감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선한 의지로 하느님을 찾는 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시거나, 몇 년 전 방한하셨을 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시면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역시 복음적 인권 감수성의 빛나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3.**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차별을 겪는 이들은 대부분 여러 부류의 소수자입니다. 이들의 고통은, 차별과 배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이를 당연시하는 다수자와 기득권층의 무신경한 태도로 더욱 증폭됩니다. 교회를 보면, 교회 역시 주변의 주류(로마) 문화에 동화(同化)된 나머지 특정 사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동기의 교회야말로 실로 몰이해와 차별을 겪던 소수자의 전형이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는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감당하고 참아 주지 못하는 '다름' 때문에 극심한 박해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자신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리스도인 역시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히브 13,12-13)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초세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늘 '이방인이요 나그네'(베드 2,11 참조)로 생각한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4.** 이방인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관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차고 넘칩니다. 예컨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레위 19,18 참조)는 구절은 단 한 군데뿐이지만,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적어도 36군데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꼭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역시 이집트 땅에서 이

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탈출 23,9; 레위 19,33-34 등 참조). 유대인들은 국외자, 타국인, 이방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 배워야 했고,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월절 축제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 밤의 상황을 재현하며 기억했던 것입니다.

**5.** "하느님의 가난한 이(아나뎀)"야말로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이해하는 이였음은 고대 교부들뿐 아니라 현대 사도좌의 가르침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컨대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은 "가난한 이들은 복음의 가장 뛰어난 수용자들이다."라고 하신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비중 있게 인용합니다(48항).

어두운 밤에만 별이 영롱히 보이는 것처럼, 낮고 가난한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비로소 고통받고 차별받는 다른 이의 처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 헤아리듯, 교회도 자기의 이 출발점을 잊지 않을 때 세상에서 쉽게 몰이해와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되곤 하는 소수자와 '경계인'에게서 '남'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공명(共鳴)하며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 '첫 자리'의 기억을 새로이 하며, 가난한 이를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함께 나누는 '가난한 교회'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과 세상의 고통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알아듣고 이해하는 복음적 명오(明悟)가 열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만 교회는 끊임없이 쇄신되고 복음화되며, 그리하여 비로소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변방으로 나가자."고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6.** 이 모든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권 감각은 "고귀한 것이긴 하나 신앙과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인권 감각은 신앙과 지극히 내밀하게 연동(連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 소수자를 착취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사람의 인간성과 인권을 해치는 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로 신성(神性)과 신권(神權)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사람을 사랑하신 나머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교회에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문화, 사회, 정치 또는 철학의 범주 이전에 신학의 범주"입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다시 말해 소수자요 경계인이라 차별받는 형제자매들을 향한 교회의 우선 선택과 연대는 그저 인간애(人間愛) 차원에서 실천하는 '자선(또는 선행)'이기 이전에 신앙 행위 그 자체입니다. 고통받는 가난한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현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느님 백성의 오랜 신앙 감각이었습니다.

**7.**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이 선주민인 우리와 공생(共生)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농어촌 지역의 노동자처럼 열악한 조건 아래 하루하루 고단한 생존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록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신앙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들 역시 한 하느님에게서 난 우리 형제자매들임을 잊지 말아야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차별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올해도 베들레헴의 누추한 여관 짐승 밥통같이 가장 낮은 곳을 골라 강생하시는 구세주께 은총을 청합니다.

2018년 12월 9일 대림 제2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 사회 교리 주간 영상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지구별 대림 시기 판공성사 일정 안내

지구	지역	본 당	일 자	시 간
마산 지구	1 지역	양덕동	12. 21.(금)	19:30~21:00
		구암동	12. 19.(수)	19:30~21:00
		산호동	본당 자체 실시	-
		삼 계	12. 18.(화)	19:30~21:00
		석전동	본당 자체 실시	-
		호 계	12. 20.(목)	19:30~21:00
		회원동	12. 19.(수)	19:30~21:00
	2 지역	남성동	본당 자체 실시	-
		상남동	12. 21.(금)	19:30~
		완월동	12. 19.(수)	
		월남동	12. 20.(목)	
		월 영	12. 18.(화)	
	진 동	12. 21.(금)		
	3 지역	남지선교	12. 19.(수)	19:30~21:00
		대 산	12. 20.(목)	
		의 령	12. 20.(목)	
		창 념	12. 18.(화)	
		칠 원	12. 19.(수)	
함 안		12. 21.(금)		
진주 지구	1 지역	망경동	12. 12.(수)	19:30~
		봉곡동	12. 13.(목)	
		신안동	12. 14.(금)	
		옥봉동	12. 11.(화)	
		칠암동	12. 11.(화)	
	2 지역	가좌동	12. 11.(화)	19:30~21:00
		금 산	본당 자체 실시	-
		문 산	12. 13.(목)	19:30~21:00
		상평동	12. 12.(수)	
		장재동	12. 13.(목)	
	하대동	12. 14.(금)		
	3 지역	거 창	12. 21.(금)	19:30~
		산 청	12. 18.(화)	
		안의선교	12. 11.(화)	
		함 양	12. 20.(목)	
합 천		12. 19.(수)		

지구	지역	본 당	일 자	시 간
진주 지구	4 지역	남 해	12. 19.(수)	19:30~21:00
		사 천	12. 21.(금)	19:00~21:00
		삼천포	12. 18.(화)	19:30~21:00
		서포선교	본당 자체 실시	-
		진 교	본당 자체 실시	-
		하 동	12. 20.(목)	19:30~21:00
		가음동	12. 18.(화)	19:30~21:00
대방동	12. 19.(수)			
창원 지구	1 지역	사파동	12. 20.(목)	10:30~12:00
		양 곡	본당 자체 실시	-
		명서동	12. 21.(금)	15:00~17:00
	2 지역	반 승	12. 20.(목)	19:30~21:00
		사림동	12. 18.(화)	19:30~21:00
		중 동	12. 19.(수)	15:00~17:00
		팔용동	12. 18.(화)	20:00~21:00
	3 지역	경화동	12. 20.(목)	19:30~
		덕산동	12. 21.(금)	
		여좌동	12. 18.(화)	20:00~
		용 원	12. 18.(화)	19:30~
		중앙동	12. 19.(수)	
	4 지역	생림선교	본당 자체 실시	-
		수 산	본당 자체 실시	-
		용 잠	12. 12.(수)	19:30~21:00
진 레		본당 자체 실시	-	
진 영		12. 21.(금)	19:30~21:00	
고 성		본당 자체 실시	-	
거제 지구	1 지역	대 건	12. 20.(목)	19:30~21:00
		북신동	12. 18.(화)	
		태평동	12. 21.(금)	
		거 제	12. 20.(목)	
	2 지역	고 현	12. 21.(금)	19:30~21:00
		옥 포	12. 18.(화)	
		장승포	12. 19.(수)	
		장 평	12. 19.(수)	
		지세포	12. 20.(목)	
		하 청	본당 자체 실시	

## 판공

판공이란 말은 한국에서만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교우들은 적어도 1년에 두 번(교회법상에는 1번) 이상 의무적으로 본당 신부와의 면접(예전에는 찰고), 고해성사, 영성체 등을 해야 하는데 이를 말하며, 이때 보는 고해성사를 판공성사라고 한다.

한국에서의 판공은 봄(부활 전)과 가을(성탄 전) 두 차례 행한다. 그런데 판공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辨功(힘써 노력하여 공을 세움)과 判功(공로를 헤아려 판단함),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 전자는 교우 쪽에서 판공을 보다 할 때, 즉 일 년 동안 힘써 공로를 세움을 사제에게 판단 받음(察考)의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그리고 후자는 사제의 입장에서 판공을 주다 할 때, 즉 일 년 동안 세운 신자의 공로를 헤아려 판단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그런데 판공성사를 3년(6회) 이상 보지 않았을 때, 쉬는 교우(冷淡者)라고 한다. 판공성사는 가족과 함께 본당 신부와의 면담(예전에는 찰고)을 한 후, 성사표를 받아, 고해성사를 볼 때 제출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판공성사는 자신의 본당에서 보되, 사정상 타본당에서 보았을 때는 성사표에 고해 신부의 확인을 받아 본당에 제출해야 한다.

## 버려진 쓰레기

박윤식 에밀리오 • 수필가



나는 양말을 거의 신지 않는다. 운동화나 구두보다 그냥 슬리퍼를 신기 때문일까? 그렇다고 미사 참례 가면서까지 맨발의 슬리퍼는 아니다.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굳이 양말을 단 한 번 신고 뺀다는 게 그리 못마땅하였다. 세제 사용이 아깝다기보다 그게 수질 오염으로 이어진다 생각하니 양말 신기가 다소 부담이고, 또한 구두 신는 게 좀 그렇다. 나아가 가끔 가까운 인근의 등산을 마치고 입구에 설치된 먼지떨이 기구는 아예 이용은 물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걸 작동하려면 발전기를 돌리거나 전기를 사용해야 할 테니까. 그냥 땀 젖은 수건으로 온몸을 털거나 신발도 대충 비비는 게 고작이다. 이러다 보면 나름으로 팔 운동은 물론 절전 또는 유류 절약도 되니까.

바깥 모임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 전 모임에서 유리잔에 스푼이 담겼기에 스푼을 종이컵에 옮기고 유리잔으로 믹스 커피를 만들어 먹었더니, 첩엔 다들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라. 그 후 몇 분은 내가 하던 그대로 잔에 커피를 만들어 들고는 깨끗이 씻어 두곤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들 일회용 컵 사용에 부담을 갖는 것 같아 기분은 그만이였다. 어디 지난 그 찌든 무더위 한 번 생각해 보자. 곳곳에 알게 모르게 빈방마다 선풍기만 돈 게 어디 한두 번이라. 나는

선풍기 틀 때도 그냥 온·오프 스위치 대신 꼭 타이머를 사용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작동이 멈추어지니까. 그러다가 더위를 느낄 때면, 다시 꺼진 타이머를 켜면 될 테니까. 물론 3층 이내는 승강기를 타지 않는다. 발목이 튼튼해서가 아니라 튼튼해지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몇 가지 낭비 요인을 들추었지만, 이 외에도 꽤나 더 있을 게다. 생활 저변에 묻어있는 낭비는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한다. 낭비로 남는 건 결국은 쓰레기뿐이리라. 적재적소의 일상으로 쓰레기를 최대한 줄여가자. 가까운 일본만 해도 버려진 쓰레기는 거의 없단다. 공공장소는 아무리 둘러봐도 아예 쓰레기 구경을 못 할 처지라나. 우리도 쓰레기 발생을 점차 줄이고, 부득이 만들어진 쓰레기는 꼭 스스로 처리토록 하자. 자연보호, 그것은 하느님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거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후손에게 넘기자.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연에서 와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깨끗한 공기는 머리를 맑게 하고, 숲은 휴식처가 되어 준다. 자연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쓰기에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 버려진 쓰레기, 그것은 자연보호에 역행하는 거다.

**재무평의회**

일시 : 12. 11.(화) 10:00  
장소 : 교구청

**교구청 직원 연수**

일정 : 12. 14.(금)  
장소 : 교구청  
내용 : 직원 연수로 교구청 휴무

**견진성사**

일정 : 12. 16.(주일)  
장소 : 생림선교분당

◆ **교구청 직원 모집** ◆

미디어국에서 임시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 임시직 1명(2019. 1. 2.~2020. 4. 29.)  
특이사항 : 미디어국 업무 보조, 컴퓨터 능통자(포토샵, 일러스트 사용 가능자)

제출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접수 : 12. 20.(목)까지 도착분에 한함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 (우 51727)

문의 : 사무처 055)249-7019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교 구**

■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시 : 진주지구 - 12. 12.(수) 14:30  
장소 : 신안동성당

일시 : 거제지구 - 12. 13.(목) 14:30  
장소 : 고현성당

문의 : 사목국 055)249-7021~3

■ **신학생 겨울방학**

일정 : 12. 14.(금)

■ **제434차 가나혼인강좌**

일시 : 12. 16.(주일) 13:00

장소 : 교구청

문의 : 가정사목국 055)249-7028~9

■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 매주(수) 14:00~17:30, 19:30~21:00

장소 : 중동성당/ 대상 : 신자, 일반인

내용 :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기관 · 단체**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봉사자 월례회**

일시 : 12. 10.(월) 14:00/ 장소 : 장평성당

대상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문의 : 담당자 010-3903-8234

■ **교구 전례꽃꽂이회 12월 월례회**

내용 : 월례회의 없음

■ **교구 여성협의회 상임위원회**

일정 : 12. 11.(화)

장소 : 교구청

문의 : 여성협의회 055)249-7116

■ **대림 일일 피정**

일시 : 12. 15.(토) 10:00~16:00

장소 : 월남동성당

강사 : 유영봉 야고보 몬시놀

내용 : 주님안에서 참행복과 내적평화

대상 : 교구 전신자(미사있음, 점심제공)

문의 : 교구 웰다잉 교육회 010-5883-4413

■ **교구 체나콜로(다락방) 12월 기도 모임**

일시 : 12. 17.(월) 13:30~16:00

장소 : 사파동성당(미사준비)

문의 : 회장 010-9399-5454

■ **이주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미사 안내**

**필리핀 공동체미사(영어와 타갈로그어)**

일시 : 매 주일 14:30/ 장소 : 칠암동성당

일시 : 매 주일 15:00

장소 : 창원시산성종합사회복지관

일시 : 매 주 토 19:30/ 장소 : 장평성당

**베트남 공동체미사(베트남어)**

일시 : 매 주일 12:30/ 장소 : 칠암동성당

일시 : 매 주일 18:00/ 장소 : 명서동성당

**동티모르 공동체미사**

일시 : 매월 셋째 토 20:30

장소 : 태평동성당

문의 :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 **청년 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도박을 끊고 싶으십니까?**

매주 정기적인 모임으로 도박질병을 치료하고 도박이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가톨릭신문 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 2019. 1/17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420만원

▶ 2019. 1/22 **나가사키** 4일 105만원

▶ 2019. 2/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 2019. 2/26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http://www.cttour.org)

**SM 수맥 흥(흥)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 · 신문 광고 中

**1588-533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씁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가톨릭 트러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9년 4월 5일 출발, 전문 인솔자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http://www.catravel.co.kr)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전화 : 055)293-560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있는 방법을 찾는 익명의 모임입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 주일 17:00  
문 의 : 담당자 010-9992-3443

**기 타**

- 서울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 시 : 12. 14.(금) 18:00~16.(주일) 15:00  
문 의 : 010-6812-3334/ 마산역 김안과 앞
- 청년 성탄전례 피정  
일 시 : 12. 24.(월) 16:00~25.(화) 1박 2일  
장 소 : 튕짱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 상 : 35세이하 청년/ 회 비 : 2만 원  
문 의 : 010-8519-3431
- 제7기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신 청 : 12. 30.(주일) 마감, 대전가톨릭대 학교(dcatholic.ac.kr)  
장 소 : 정하상교육회관  
문 의 : 정하상교육회관 010-6788-1540
- 시청각통신서교육원 학생모집  
과 정 :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 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원 서 : http://uus.pauline.or.kr 바오로딸  
접 수 : 1. 31.(목)까지/ uus@pauline.or.kr  
문 의 : 02)944-0819~24/ 0840~2(이러닝)

■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 간 : 2019. 3.~12.(2월 예비학교)  
내 용 :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 택 : 교육비 전액 무료, 수당 지급  
취업(최근5년평균취업률96.4%)  
문 의 : 02)828-3600, www.donbosco.ac.kr

■ 부산 분도명상의집 피정의집 직원 구함  
모 집 : 여 1명(주거 가능)  
서 류 : 이력서(사진 첨부)  
E-Mail : bundobusan@naver.com  
문 의 : 051)582-4573, 010-6650-4574

**호계분당 제1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이근직(즈가리아)  
사목부회장(남성) : 권일준(마르첼리노)  
사목부회장(여성) : 설보영(요셉피나)  
총무부장 : 문창복(엘리자오)  
기획분과장 : 안재형(시메온)  
전례분과장 : 권흥국(베드로)  
복음화분과장 : 서광숙(레지나)  
사회복지분과장 : 이정숙(테레사)  
교육분과장 : 조훈(토마스)  
홍보분과장 : 정옥자(베로니카)  
구역분과장 : 도봉희(테레사)  
가정사목분과장 : 성기열(올리아노)  
청소년분과장 : 허미숙(안젤라)  
시설분과장 : 강상수(야고브)  
민족화해분과장 : 이명진(프란치스코)

**금산분당 제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이동호(프란치스코)  
사목부회장(남성) : 최용조(요아킴)  
사목부회장(여성) : 이혜숙(안나)  
총무분과위원장 : 이강웅(프란치스코)  
재경분과위원장 : 하원수(다니엘)  
전례분과위원장 : 김미란(에스텔)  
복음분과위원장 : 김옥주(클라라)  
교육분과위원장 : 이진형(이냐시오)  
시설분과위원장 : 천상용(요한)  
청소년분과위원장 : 서현진(제노베파)  
구역분과위원장 : 유희정(아네스)  
홍보분과위원장 : 박현덕(크리스피노)  
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성인기(베드로)  
가정사목분과위원장 : 오영민(엘리사벳)

**함양분당 제3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 정천상(바오로)  
사목부회장(남성) : 이용태(파비아노)  
사목부회장(여성) : 강명남(미카엘라)  
총무 : 정재형(스테파노)  
기획분과장 : 이서윤(아네스)  
구역분과장 : 박옥희(크리스티나)  
복음화분과장 : 최민경(마리아)  
시설분과장 : 손상현(미카엘)  
청소년분과장 : 정원영(비비아나)  
전례분과장 : 서혜정(올리아)  
사회복지분과장 : 정현옥(헬레나)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 구	12. 10.(월) 19:00	월남동성당	스트레스	박인수 신부(요한)	박인수 신부(요한)	010-5072-5612
창원지구	12. 10.(월) 19:00	반 송 성 당	말씀이 사람이되시어 함께 살아가는 삶	진홍장(타대오, 삼성산 성지)	이정근 신부(요한)	010-4553-7425
진해지역	12. 10.(월) 19:00	중앙동성당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인숙(마리아, 서울대교구)	정철현 신부(바오로)	010-7566-9441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대상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 15.(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품격 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 1월 24일 출발  
이스라엘 대한항공 9일 (359만원)
- 2월 19일 이스라엘 오르단  
대한항공 11일 (399만원)  
※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 02)852-8525

라섹수술,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EX500엑시머레이저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진해시니어클럽 **자연 숲**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 9일 2/2 (375만원)
-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3/13 (289만원)
- ◆ 나가사키 4일 2/27, 3/19 (94만 9천원)
- ◆ 다낭 5일 2/24, 3/10 (12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 02)778-8565

  
**교구보 2019년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교구보 광고 후원은 복음전파를 위한 봉헌입니다.  
문의 : 미디어국 055)249-7072

#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이론적 배경은 묵시록 20장이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년 뒤 다시 오신다는 것이다. 물론 숫자적 천년은 아니다. 그만큼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만 분명 오신다는 메시지다. 그러니 로마의 박해를 견디며 기다리자는 가르침이었다. 천년왕국 사상은 초대교회를 격려했다. 사탄은 결박당해 던져지고 순교자들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은 재림사상과 혼합되어 초대교회 버팀목이 되었다.



테르툴리아누스  
(몬타누스주의자 중 한 사람)  
출처: Google

묵시록 20장 첫 부분이다.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탄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천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묵시 20,1-3).

160년경 몬타누스 Montanus의 등장으로 천년왕국 이론은 위험성을 드러낸다. 그는 터키 중부지역(프리기아)에서 활동

하던 밀교 사제였다. 개종해 신자가 된 뒤 강력한 종교적 엑스터시(황홀감)를 내세우며 종말의 임박을 설파했다. 당시는 뜨겁던 재림사상이 퇴색해지고 있던 시기였다. 기다려도 주님께선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몬타누스는 인근 도시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까지 예언했다. 많은 교우들이 따랐다. 하지만 종말은 없었다. 추종자의 실망이 깊어질 때 몬타누스는 자살한다. 그렇지만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엄격한 도덕 생활과 금욕주의 때문이었다.

천년왕국설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금지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는 무천년왕국을 설파했다. 없다는 이론이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시대를 상징할 뿐이라 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부정의 민중운동 이념으로 있다가 위기의 시대엔 등장하곤 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성행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단과 여호와의 증인 역시 천년왕국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과 새 하늘의 시작을 외쳤던 조직이 있다. 다가올 미래라는 뜻의 다미선교회였다. 재림날짜와 장소를 명시하면 이단이 된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은 있을 것이다.

# 쌀의 가치

11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농민들이 모여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쌀 목표가격 24만 원 쟁취를 위한 농민결의대회'를 열고 풍찬노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현재 쌀 한 공기 가격이 껌 한 통 값도 되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살림을 살지 않는 나로서는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 외에 크게 아는 바가 없어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최근 경남도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쌀 목표가격 80kg에 24만 원(1kg 3,000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보고 정부의 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과 쌀을 바라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남의 한 도의원 설명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공식 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5년마다 책정)은 한 포에 18만 8천 원으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350원. 20년 전인 1997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쌀을 제외하고 20년 전 가격인 것이 있는가? 이 사실을 두고 우리는 쌀값이 올랐다고 할 수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이 61.8kg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145,230원. 하루 평균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69g으로 금액으로는 397.9원. 한 끼 쌀은 (매일 세끼를 먹는다 가정하면)

56.4g으로 132.6원. 농민의 땀과 피값이 껌 한 통 450원, 담배 한 개비 200원보다도 적으니 이제야 왜 그들이 그들의 자식과 같은 쌀을 도로에 쏟아 붓고 시위를 하는지, 백남기 농민의 절규가 무엇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세네갈에서 열린 국제가톨릭농민운동연맹(피막) 세계 총회 참가자들 또한 한국 정부의 유엔 농민권리선언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농민권리선언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뒤에도 국제인권법으로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선언이다. 국제사회가 유독 일부 집단처럼 보이는 "농민과 농촌지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나선 것은 농민과 농촌지역민의 권리가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며, 이들의 권리가 모든 인류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농민은 단순한 여러 직종 중의 하나가 아니라 굶주림을 겪는 세계 약 8억 명의 생명권과 인권, 기후변화와 생명 다양성 보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이들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음이 마땅하다(참미밭오소서 129항).